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할머니골탕

울창한 숲에서 즐기는 여유

숲 속으로의 여행은 언제나 즐겁다. 청명한 하늘아래 질푸른 초록빛 삼림과 숲 속에 마련된 작은 통나무집,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상쾌한 바람 등 숲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도시를 벗어난 이에게 커다란 청량감을 안겨준다

글 · 사진 : 전기환

비슬산 산행은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양림쪽에서 오르는 것이 가장 짧은 코스이기도 하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휴양림 방향으로 걸어 들어가면 소재사. 매표소가 연이어 나타나고 곧장 계속 오르면 대견사지로 향하는 본격적인 등산로가 펼쳐진다.

연못이 있는 삼거리에서 곧장 오르면 정상부근의 대견사지로 향하게 된다. 거리는 약 2.5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약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우측으로 난 포장된 길은 대견사지로 향하는 임도, 콘크리트 포장에 돼 길은 편하나 능선을 따라 돌아가 길이 멀다.

얼마를 걸었을까. 한참 만에야 대견사지에 이르게 되었다. 가파른 등산로가 끝나면 능선으로 이어진다. 이 능선을 따라 약 300m 정도 가면 넓은 바위위에 세워진 석탑이 있는 대견사지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가파른 길을 올라온 것과는 달리 평탄한 길이 이어진다.

대견사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원한 산세가 모두 드러난다. 청도군 각북면과 달성군 가창면, 옥포면, 유거면을 잇는 비슬산 남저반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삼층석탑만이 사찰의 유해를 말해 줄뿐이지만 사찰이 들어선 산세 등이 남다르다. 봄철에는 평원 가득히 붉은 꽃잎이 온통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비슬산휴양림

비슬산 조림에 비슬산 자연휴양림이 펼쳐져 있다.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울창한 숲은 독특한 자연미를 선사한다. 소매 틈으로 밀려드는 선선한 바람에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된다. 휴양림에는 집채만한 바위가 군락을 이룬 바위마당을 비롯해 계곡 곳곳에 숨은 듯 자리 잡은 기암괴석이 눈길을 끈다. 무려 3,000여 평에 이를 정도로 넓은 산기슭에 온통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겨울에는 계곡이 얼어붙어 신비로운 얼음동산을 이루기도 한다.

주차장에서 휴양림으로 걸어가다 보면 소재사에 닿는다. 그리 큰 사찰은 아니지만 재앙을 멸해준다는 의미가 깃든 신라시대 고찰이다. 이어서 매표소가 나오고 본격적인 휴양림은 시작된다. 차례로 관리사무소, 신막, 청소년수련관 등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자연을 해치지 않은 조경이 아름답다. 물놀이장, 야외교실, 체력단련장 등 휴양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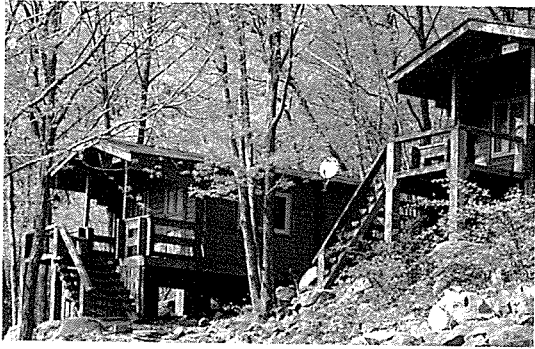
소재사와 대견사지

비슬산 휴양림 조림에 위치한 소재사는 재난을 없애 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고려 공민왕, 조선 세조, 중종, 철종 때 각각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사찰은 1976년 보수한 것

정상에 위치한 대견사는 신라 헌덕왕 때 지어진 사찰로 임진왜란 때 허물어져 버리고 빈터에 주춧돌과 석축만이 남아 있게 된 것. 현재 삼층석탑 역시 허물어져 있던 것을 1988년도에 복원한 것이다.

옛날 중국 당나라의 황제가 절터를 찾던 중 신라 헌

▼ 달성군 비슬산 휴양림



덕왕 때 이곳 비슬산에 절과 삼층석탑을 건립하고 대견사라 한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비슬산 주봉에서 남쪽으로 약 2km 해발 1,000여 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삼층석탑에서 내려다보면 낙동강을 비롯해 영남의 산하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인다.

한편 비슬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유가사는 신라 흥덕왕 2년(827년) 도성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절 뒤로 각양각색의 봉우리가 돌 병풍 모양으로 쳐져 있다. 절위로 오르면 수도암, 도성암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구슬(瑜)과 부처 형상(伽)의 비슬산 정상아래 있다하여 이름이 유가사로 지어졌다고 한다.

5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진한 국물맛

비슬산 산행 길에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 박소선할매곰탕집이다. 이곳은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달성군의 명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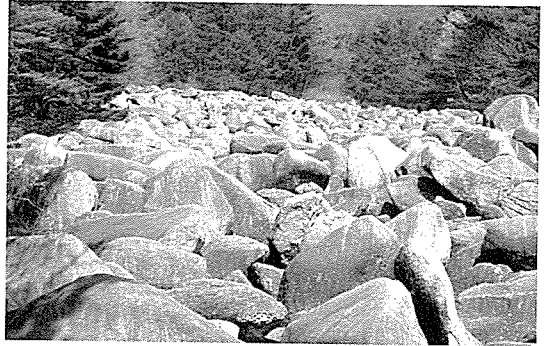
오랜 세월 동안 진한 국물이 좋은 곰탕 하나만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곰탕집을 연 것은 지난 1945년. 벌써 50여년이 훌쩍 지났다. 지난 88년 올림픽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1987년 원조 박소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외아들(치준옹씨)내외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 집의 곰탕은 무엇보다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가마솥에서 푹 곤 곰탕의 국물과 함께 쫄깃쫄깃한 쇠고기의 육질은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려주기에 충분하다. 구수한 국물에 고기도 듬뿍듬뿍 담아내기로 유명하다. 나물무침, 무장아찌 등 밑반찬이 함께 제공된다.

차씨 내외의 말을 빌면 어머니의 조리비법을 그대로 전수 받아, 보약을 달이는 정성으로 음식을 만든다고 한다.

곰탕의 생명은 역시 국물 맛인데 이 집에는 국물을 내는 나름의 요령이 있다. 우선 가마솥을 충분히 달군 뒤 참기름에 고기를 볶아 냄새를 제거한다. 솥에 우족, 양, 꼬리 등을 넣고 장시간 푹 곤다. 충분히 달인 국물에는

▼ 달성군 비슬산



고기를 썰어 넣는다. 여기서 고기와 참기름 물을 제외하고는 양념이나 조미료를 가급적 첨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골을 사용하는 설령탕과는 구별이 된다. 꼬리, 양 등을 삶아 뽕뽕뽕 떨어낸 수육 역시 소주와 만나 애주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77

실용정보

☞ 비슬산 휴양림

통나무집 숙박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다. 텐트 1동 3천원, 아영데크 1만원, 캠프피어장 이용 2만원, 바비큐장 이용료는 1만원이다. 성수기인 7-8월과 휴일 전일을 제외한 평일인 월-목요일은 50% 할인된다. 입장료는 어른 1천원, 청소년 7백원. 비슬산자연휴양림 ☎053-614-5481



☞ 박소선할매곰탕집

곰탕 8,000원, 꼬리곰탕 13,000원, 양곰탕 11,000원, 수육 19,000~23,000원, 꼬리수육 33,000원, 모듬수육 38,000원. ☎053-615-1122

☞ 찾아가기

구미고속도로 현풍나들목에서 나오자마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한다. 달성군 유가면 상리 우만마을 삼거리에서 곧장 직진하면 휴양림으로 이른다. 좌회전하면 유가사로 방향. 참꽃군락지를 찾아가려면 이곳 삼거리에서 휴양림 방향으로 직진하면 된다. 삼거리에서 휴양림 입구까지는 약 5km거리다. 박소선할매곰탕집은 현풍면 소재지에 위치한다.